

## 한국의 도서관학 교육

— 73년도의 회고 —

慮 玉 順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長)

지난 1年間에 국한된 토막진 회고를 통하여 도서관학 분야에서 더듬어 볼 수 있는 새로웠든 사실들을 엮어 보는데 한정하며, 따라서 매년 거듭되는 유사한 체제의 내용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피력하여온 자체반성과 비판을 축구하는 보다 기본적이고 이념적인 태두리에 속하는 문제점들에 관하여서는 이 글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 I. 교과과정상의 변화

#### 1. 학부의 교과과정

금년도 도서관학 교육계에서 특기할 사실이라면 근본적으로 대동소이하였던 종전의 4개 대학 학부 도서관학과의 교과과정의 평성이나 교육방법의 양상이 크게 변화를 일으키게 된 점이다. 이미 발표된 바와 일치하게 문교부 지정 실험대상 학교에 포함된 이화여자대학교를 필두로 1973학년도 입학생으로부터 시작하여 크게 3가지 면에서 현재까지와는 다른 문교부 대학교 육정책에 따르게 되었으며, 실현기간이 끝나 75년도부터 他大學에도 적용 실시 될 경우에 現 梨大圖書館學科의 교과과정 평성은 하나의 모델 패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세가지 커다란 변화란 1) 학생의 제열별 모집. 2) 부전공 제도의 실시. 3) 학부의 이수 총학점을 160에서 140학점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제열별 학생모집의 결과 일정한 정원수의 학생을 모집하여온 소위 과거의 “科學生”이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人文·社會계열을 지망하여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二學年 마지막에 전공과 부전공을 택하게 될 때 비로소 도서관학 전공회망성을 알게된다. 이화여자대학의 경우 현재제에서는 1學年 2學期와 2學年 1·2學期에 각각 소위 “探索科目”이라 칭하는 도서관학 관계 과목을 하나씩 개설하고 학생들이 임의로 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전공을 위한 적성 및 관심과 흥미

를 시험내지 준비하는 계기를 삼도록 마련한다.

어느 한 전공의 수용능력이나 소요자질에 의한 정원조절의 문제는 별도로 여러가지 객관적 겸사기준과 탐색과목 수행능력(성적)등의 종합평가가 본인의 희망의도와 병행하여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부전공의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同一계열內에서만 가능하다. 전공과 비전공의 학점의 비율은 40~50 25~25학점으로 구분되고, 나머지 70학점이 일반교양의 필수와 선택으로 총 140학점을 이룬다.

어느정도의 주제지식의 배경을 필요로하는 도서관학의 견지에서 보면, 부전공의 필수는 오히려 환영할 수도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일면으로는 아직 국가적 정책에 의한 분류목록과 같은 기술작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결반정도 밖에 못미치는 도서관학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대되는 모든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이다. 특히 종래의 전공 80학점 중의 상당한 시간이 日語와 漢文교육에 할애되었음을 상기할 때 45%의 삭감은 전공內에서의 言語교육은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語學의 토대위에 문헌적 배경을 강조하는 바람직한 사서배출의 도와는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도서관 및 학제의 변화와 추세에 대비하고, 또한 우리 고유의 사회문화 현상에 적절하고 필요한 독자적 교육내용의 구성으로 더욱 알찬 교육효과를 모색함이 진박한 연구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부전공으로 도서관학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도 전공생과 동일하게 정사서 자격증이 수여되게 되면 (아직 정확한 도서관법의 유권해석은 내려지지 않고 있으나 과거의 몇몇 사례에 미루어 부전공으로도 도서관학 학점 20학점 이상 취득하면 정사서 자격증을 받는다.—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2항 2호 참조) 전공과 부전공간의 객관적인 자격취득 상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형편이 된다. 이는 장차 각급 도서관의 인사채용 방침상의 변화를 의미하며, 구직을 원하는 사람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도서관학개론 #	도서, 인쇄, 출판의 역사 #	사회와 도서관 #	※분류 #	※목록 #	※서지학 #	※정보과학 #	※자연·응용과학 서지 #
			※도서관사 #	※도서관과자료 #	※사회과학 서지 #		※한국전적해제 중국전적해제 공공도서관운영 #
			※도서관운영 도서관문현 강독 도서관과 매스 미디어 아동 및 청소년 독서	※참고봉사 학교도서관운영 정부간행물 및 저작권법	※인문과학 서지 ※실습 특수도서관운영 대학도서관운영		※한국전적해제 중국전적해제 공공도서관운영 #

주: 전공 75 탐색 9 전공필수 37※ 부전공필수 12# (3, 4학년에서 분야별서지중 1개선택) 실습을 제외한 모든과목은(1) 3학점 전공필수 37학점을 선택 13학점을 하여 50학점까지 할 수 있고 부전공을 20학점이 되도록 선택한다.

과 채용기관과의 모종의 마찰가능성도 대포할 수 있다. 세번으로 총 이수학점의 삼각은 적절적인 문제는 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약하고 아래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梨大圖書館學科에서 신규학제에 의거 채택된 교과과정표를 소개한다.

## 2. 대학원

1971년의 성균관대학교를 뛰어어 금년 3月부터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가 석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따라서 4개 대학이 모두 정규 대학원 과정을 갖추게 되었다. 보다 높은 수준의 사서배양을 의미하는 것이며, 도서관학의 어느 한 분야를 가일층 심오하게 연구할 계기를 널리 마련한다는 원칙적인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학부과정의 단축에 따라 앞으로 대학원의 요구와 필요는 더욱 절실히 하여 질 것이며, 따라서 독자적 교수진의 不在에다 교과내용에 있어서 단순히 학부의 되풀이거나 연장만에 지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의 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현재와 미래의 사회가 요청하는 학문의 전문화 내지 개별성에 대응키 위한 자세로 임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학원 과정에 사회적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금년 최초로 실시하게 된 연세 대학교 도서관학과와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의 대학원간의 학점 교환제도는 우리의 현실적 여건에서 시의에 적합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대학원 학점 교환제는 원래 1971년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간의 상호협동을 위한 프로젝트로 아세아 기독교대학 발전 위원회의 연구보조비를 지원받아 1972학년도 제 1학기 부터 몇몇 학과 단위로 부분적 학점 교환제에 의한 장의가 실시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도서관학과의 경우는 해당학과가 없는 서강대학을 제외하고, 두 대학원에서 원칙적으로 전임교수의 담당 과목중합의된 학과목을 학생들이 각기 他大學院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되 매

학기당 4학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우선 이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유능한 교수진의 상호활동, 시설과 도서의 상호활용, 학문의 개방 폭 넓은 교우관계 및 사제관계의 개선, 선의의 경쟁 등 이외에도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이번 학기에는 우선 각 대학이 한 강좌를 서로 他大學院 학생에게 수강을 허락하고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4개 대학원간에 이와 같은 협동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교육 대학원

이화대학과 연세대학이 개설하고 있는 교육대학원 과정은 사서교사를 비롯한 교직자나 교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위하여 그 필요가 인정되고 있다.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면 첫째로 교과과정 평생면에서 볼 때 동일한 석사학위 취득자이면서도 도서관학 분야의 과목을 깊이 세분하여 전공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는 수강생간의 배경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도서관학에 전혀 생소한 학생과, 학부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現職에서 이미 상당한 경력도 소유한 사람으로 직장업무에 지장없이 야간교육을 통하여 전문적 석사과정을 밟고 학위를 취득하고자하는 학생과의 실질적인 구분이 없이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들 수가 있다. 일반대학원 과정에서와 흡사하게 적어도 필수적인 선수과목들을 이수한 후에, 생소한 이들에 대하여 함께하여 좀더 높은 수준의 대학원 교육이 이룩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 II. 연구 활동

이해에도 도서관학 교육분야에서 열중하시는 분들의 연구결과가 지상을 통하여 계속 활발하게 발표되었음은 성숙기에 들어선 우리의 학제를 재삼 확신하게 하며 더욱 독자적 학문연구와 개발이 기대된다. 외국어로 된

문현과 번역문현에 대한 도서관학도들의 의존비율이 점차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의 문현을 학습과 연구의 참고자료로 할 수 있게 되었음은 치하할 일이다. 학계인사들의 꾸준한 연구만이 이제 우리가 미국식 혹은 영국식 등 외국모방적 교육에서 벗어나서 '한국적' 도서관학을 정립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각종 기관지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제의하고 주목할만한 논문집으로 6月에 출판된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창립 10주년 기념 특집호 圖書館報 제 2집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천혜봉교수의 "全身舍利寶筮印陀羅尼經", 波噶俊 교수의 "韓國天文·曆學과 「主制羣徵」", 鄭駿謨 교수의 "情報科學의 屬性과 文獻情報學", 崔成眞 교수의 "圖書館學과 情報學", 金孝貞 교수의 "어린이圖書館司書의 意識과 認識" 등의 연구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同大學에서는 제11회 학술발표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도서관학의 연구방향」이라는 大主題下에 우리나라의 도서관학의 시대적 구분을 시도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위한 여러분의 발표의 기회도 마련하였다.

한국 도서관학회에서는 금년 2月 16日에 학술발표회를 가지고 최성진 교수의 "도서관학과 정보학" 그리고 손정표씨의 "대학 도서관 장서구성의 최저기준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6月 29일에는 총회에 이어 김세익 교수의 "학제 변경에 따르는

도서관학 교육의 진급과제"에 관한 발표와 의견교환이 있었다.

圖書館學 제 2집을 출판한 본 학회는 년내로 제 3집의 발간을 서두르고 있다. 다수의 연구논문이 수록되도록 계속 관계 모든 분들의 노력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정보관리 연구회가 광장한 제1차 학술발표대회에도 도서관학 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구자영, 최성진 교수 등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참여라든가 기타 각종 세미나에의 적극적 참여는 당연하고도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 III. 한국 도서관학 교육 협의회

1972년에 4개 대학 도서관학과 전임교수로 구성발족된 협의체로서 도서관학 교육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문제와 요구를 협의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4月 26日에 이화여대 도서관학과 교수실에서 간사회의를 개최하였고, 5月 10日 경기총회에서는 학제개편 및 학점감축에 따르는 도서관학 교육상의 문제점들과 이에 대비하여 방향설정을 모색하기 위한 장시간의 공동협의가 있었고 또한 각기 대학에서 동일 주제나 영역을 강의하는 교수들간의 교육내용 조정 가능성에 대하여도 상호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22面에서 繼續)

#### 其他 文獻圖書事業

유네스코는 UNDP受託事業의 일환으로 다음 2個年에 圖書館, 文獻센타, 文書保管所에 관한 專門家의 파견, 장학금, 장비, 圖書 등을 회원국政府의 요청에 따라 提供할 것이다.

유네스코는 또한 세계 각處로 부터 圖書館, 文獻센타, 文書保管所에 관한 專門圖書 및 文獻을 수집하여 同分野에서 取扱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이다.

註 : 略語表

CODATA; Committee on Data for Science and Technology (ICSU)

DARE; Data Retrieval System for Documentation in the Social and Human Sciences.

FID;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Documentation.

IBE;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IBY; International Book Year.

ICA;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CSU-AB; 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s Abstracting Broad.

IFIP;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

ILO;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SDS; International Serials Data System.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RID; 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on Research in Documentation.

NFSAIS; National Federation of Science Abstracting and Indexing Services.(U.S.A.)

NITC; National Information Transfer Centre.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SIST; World Science Information System.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